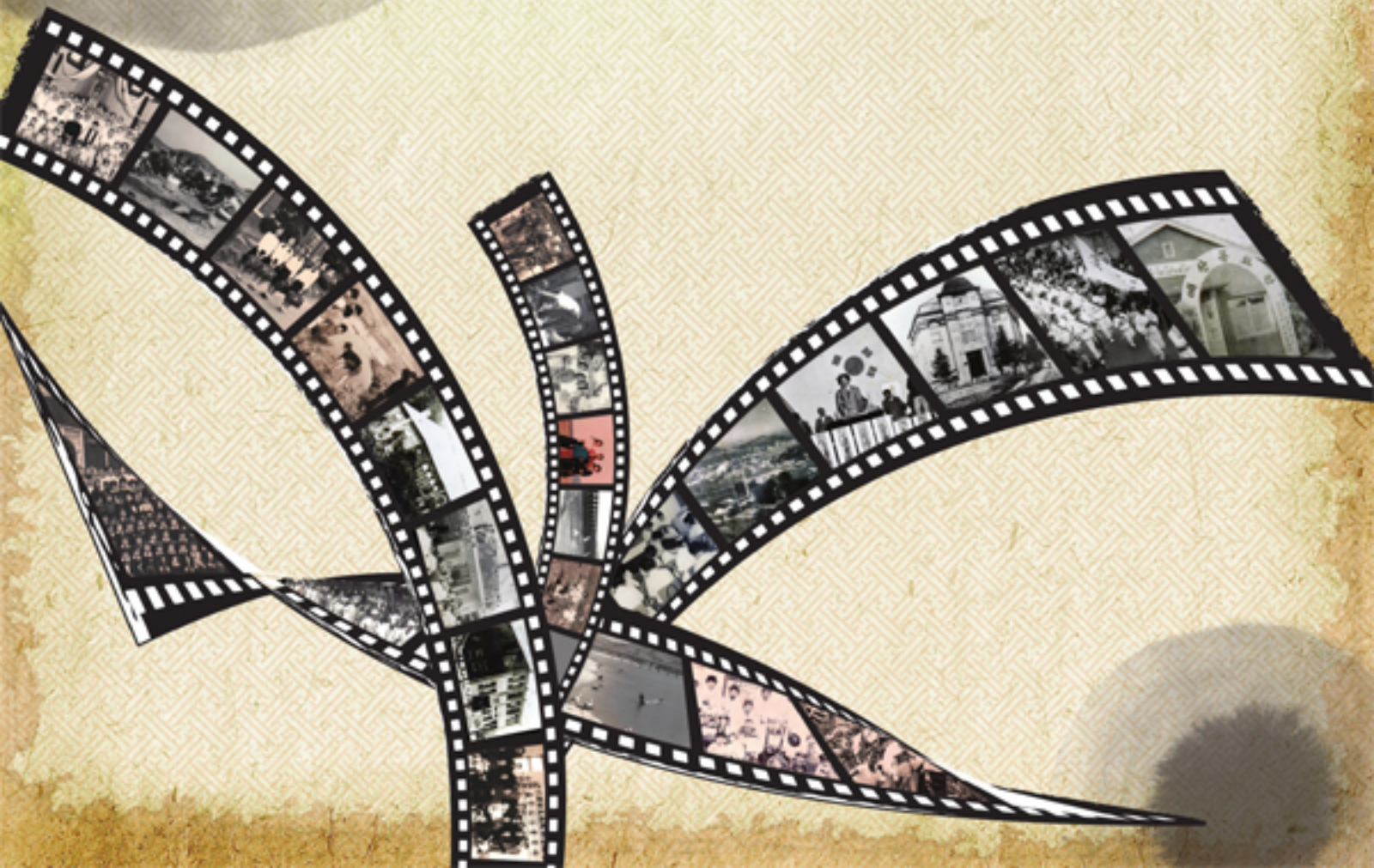




예산군  
옛 사진 공모전

제1회 예산군 옛사진공모전 사진집

“1,000년의 역사와 함께해 온 그 때 그 시절  
예산의 모습과 추억 속의 이야기들을  
옛 사진을 통해서 다시 만나봅니다.”



# 예상조 옛사진 공모전

표 제

## 인강 신은숙

- \*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동양미학전공)
- \* 성균관대학교 특수대학원 외래교수역임
- \*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외래교수역임
- \*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이사 역임
- \* 추사김정희선생기념 전국취호대회 장원  
(문화관광부 장관상)
-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신사임당, 율곡서예대전,  
월간서예, 추사취호대회, 서도협회, 근로자문  
화예술제 등 심사위원 다수 역임

- 현. 세명대학교 외래교수
- 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서예문인화과정) 외래교수
- 현. 한국서예학회, 서예비평학회, 성균서학회 이사
- 현. 한국서예학회, 한국서예비평학회 이사, 한국서학회 이사  
학원총연합회 이사
- 현. 인강서예문인화연구실 원장



예산군 제1회 예산군 옛사진공모전 사진집

# 예산군 옛 사진 공모전

“1,000년의 역사와 함께해 온 그 때 그 시절  
예산의 모습과 추억 속의 이야기들을  
옛 사진을 통해서 다시 만나봅니다.”



## 범 례

---

- \* 본 도록은 2013년 제1회 예산군 사진전에서 수상하거나 출품된 사진을 소중한 예산의 사료로서 삼기 위해 발간되었다.
- \* 본 도록은 입상순서로 게재되었으며 소중한 예산의 역사자료가 사진이기에 출품된 사진 모두를 게재하였다.
- \* 부록으로 예산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등으로 무한정보에서 기획·연재하였던 사진과 기타 역사적 사료로서 기증된 사진을 담았다.

## 발간사



예산의 유구한 역사가 이제 1,100여년의 역사를 품게 되는 즈음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예산의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모아 도록으로 편찬하여 역사적 사료로 삼아 현재의 삶을 반추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후세에 우리의 발자취를 물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해 보고자 2013년 제1회 예산군 옛사진공모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습 그리고 생활상을 엿보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온고지신 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지역 예산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라 새삼 느껴 봅니다. 아울러 이번 옛 사진전에 출품하신 분과 좋은 사료를 위해 기증해 주시어 예산의 역사를 보존하는데 기여를 해주신 출품자와 기증자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작은 앵글을 통해 순간을 담은 낡은 사진 한 장이지만 1,100여년 흐르는 예산 역사의 한 부분임을 감안해 보면 본 도록은 살아있는 역사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세대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매제로 자라는 후학들과 기성세대에게는 우리의 옛 모습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하는 예산을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의 역할이 될 것 입니다. 이렇듯 뜻 깊은 예산군 옛사진 공모전과 도록을 편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최승우 예산군수님과 조병희 예산군의회회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우리의 옛 모습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하는 예산을 그려보며 본 도록이 예산의 사료로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2013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운

## 심사평



천여년이 넘는 고찰과 문화유적들이 예산군 곳곳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우리지역의 산천이기에 부담 없고 낯설음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칫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늘상 건너 다니는 다리 옆에 서있던 선물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쓰러지고 풍파에 땅에 묻히어도 관심없는 사람에게는 굳건히 버티어 마을 어귀에 서있던 선물의 존재가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 잊혀 버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만년을 자랑하는 나라의 국민이며 예산이라는 1,100여년이 넘는 지명 속에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는 많은 문화유적과 걸출한 인물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에 어느 지역보다도 예산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앞으로도 우리들의 터전이 될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때는 장항선을 무대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청 호서지역의 지역경제를 주름잡던 지역이었던 만큼 비록 과거로 치부해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역사이기에 되돌아 배울 것은 배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전기의 발판을 삼아보자는 취지로 예산문화원에서 제1회 예산군 옛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이에 응모된 사진을 보면서 6명의 심사위원들 스스로도 낡은 과거사진이지만 예산사람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낡은 사진 속에서 정감어린 예산을 다시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도록을 접하는 분들도 저희들과 같은 느낌으로 접하시리라 믿습니다.

응모된 사진은 한결같이 예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사진이기에 모두 대상의 자격이 있으나 공모전인 만큼 사진에 희소성이 있는가, 예산의 사라진 모습이나 풍습을 잘 담고 있는가, 독특한 사연이 있는가, 사진의 구도와 보관상태가 좋은가, 오래된 사진인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모두 근소한 차이지만 차등이 생기게 되었음에 소중한 사진을 출품해 주신 출품자분들의 넓은 마음의 양해를 당부드리는 한편 예산만의 역사책을 꾸미는데 일조를 해주신데 더욱 깊이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역사는 기록인 만큼 사진 한 장 한 장 소중히 도록에 담아 영원한 예산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심사위원장 송재철

## 심사위원명단

성명	주요경력
송재철	예산문화원 자문위원
박병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김문희	예산문화원 부원장
박성묵	예산역사연구소 소장
김영우	늘푸른 예산21 사무국장
조형석	예산을 담은 사람들 사무국장

## 예산군 옛사진 공모전 수상자 명단

대상 조보영

---

금상 정원희

---

은상 김성경, 김재만, 노명자, 우재희, 정해운

---

동상 김종근, 박현호, 서정인, 오재용, 이명구, 이원규, 정민희, 정상열, 조우형, 최태화

---

입선 김전원, 신성희, 윤정애, 장기철, 김재만, 노명자, 박현호, 서정민, 오재용, 우재희, 이명구, 정상열, 정해운, 최태화

※수상작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었음을 알립니다.



제1회  
예산군  
옛사진공모전  
수상작

공모전에 응모한 예산의 옛사진 작품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조보영

3대 직계가족사진-1914년 시동리 촬영



촬영년도 | 1914년 촬영장소 | 봉산면 시동리 185번지 출판당

공모전 출품사진은 사진이 몹시 귀하던 시절인 1914년 충남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185번지에 직계가족 3대가 모두 모이는 기념으로 사진사를 초빙하여 촬영한 100년 된 역사를 간직한 가족사진입니다.

사진 정 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출판자의 증조 할아버지이시고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증조 할아버지의 아드님들과 조카분들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어린 분들은 증조할아버지의 직계손자입니다.

사진 뒤편에 보이는 "출판당"은 출판자의 증조할아버지께서 거하시던 상기 주소지 거소의 별칭으로 출판자의 11대조 할아버지이신 문목공께서도 거주하시던 땅에 세워졌으며 오늘 현재에도 증손이 살고 있어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문목공과 사진의 배경이 된 예산군 시동리에 대해 간략 말씀드리면 조선 효종때 효행과 학생으로 이름을 높 이시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시어 문목공 시호를 받으신 야곡 조극선 할아버지께서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으신 땅 이 바로 오늘의 시동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3년간 시묘를 사시어 시묘골이라 칭하였으며 나중에 시동리라는 현 지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상

정원희

### 무한천의 추억



촬영년도 | 1960년대    촬영장소 | 무한천

1960년대의 무한천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앨범에서 발견한 사진으로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무한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께서 나이차이 나는 형님과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께서 고기를 잡아 가면 어머니께서 맛나게 어죽을 끓여주시곤 했다지요. 저 너머 보이는 영라다리(무한교)와 빨래하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은 둔치공원에 트랙도 생기고 운동기구도 있어 무한천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3대가 운동하러 나와 자전거에 손녀를 태우고 달리시며 옛날 고기 잡던 무한천의 추억을 떠올리며 운동하시곤 합니다.

흑백사진 속의 할아버지

은상

김성경



촬영년도 | 1940~50년 촬영장소 | 신암면

할아버지의 중학교 시절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가 만지고 계신 것은 석유발동기로 보여집니다.

상여

은상

김재만



촬영년도 | 1964년 8월 1일 촬영장소 | 천주교 예산성당 앞

장인어른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의 군청 앞에서 노제지내고 대술 장지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상여를 매고 있는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 많은 행렬이 정말 장관입니다.

### 대흥면 상중리 저수지 봄물막기

은상  
노명자



촬영년도 | 1957    촬영장소 | 대흥면 상중리

저수지 물을 막기 위해 만든 다리 착공식

### 산성리 모내기

은상  
우재희



촬영년도 | 1957년 (단기 4290년) 6월 15일    촬영장소 | 산성리1구 기차길 옆 논

관모산 아래 산성리 1구 기차길 옆 논에서 모내기 행사하는 장면

新明유치원 제6회 졸업식 사진

은상

정해운



촬영년도 | 1934년 3월 촬영장소 | 예산읍 사직동

예산 최초이며 당시 유일한 유치원이었던 新明유치원 제6회 졸업식 사진

예산군수 관사 신축공사

동상

김종군



촬영년도 | 1943년 12월 8일 촬영장소 | 예산읍

군수관사 신축공사장 전경.

예농인과 예농 실습교정

동상  
박현호



강당과 온실



당시 교복

촬영년도 | 1960년대    촬영장소 | 예산농업고등학교

매헌 윤봉길 의사 동상건립

동상

서정인



촬영년도 | 1973년 6월 8일 촬영장소 | 예산중학교 본관 앞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애항심과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용 동상건립 제막식

여고시절의 추억

동상

오재용



촬영년도 | 1974년 촬영장소 | 예산여고



산신제를 지낸 후

동상  
이명구



촬영년도 | 1941년 5월 4일

광산에서 산신제 지낸 후, 임원들의 사진

예산의 얼굴(호서은행 본점)

동상  
이원규



촬영년도 | 1922년 촬영장소 | 호서은행 예산본점

옛날 집의 기억

동상

정민희



촬영년도 | 1963년 촬영장소 | 집

일본식 건축물인 옛날 집에서의 모습

4292년 예국 입학기념

동상

정상열



촬영년도 | 1959년 촬영장소 | 예산국민학교

### 시동부락 벼베기 공동작업

동상  
조우형



촬영년도 | 1943년 10월 8일    촬영장소 | 봉산면 시동리

1943년 시동부락 부녀회원 일동 추수작업 현황

### 고기잡이

동상  
최태화



촬영년도 | 1974년 추정    촬영장소 | 무한천

대흥학교 박의화 선생의 슬자가 소유했던 사진 김전원



대흥공립보통학교 부설 대동학교 제1회 졸업기념 촬영년도 | 1924년 3월 8일



대흥공립보통학교 제3회 졸업기념 촬영년도 | 1917년 3월 7일



대흥공립보통학교 부설 대동학교 제8회 졸업기념 촬영년도 | 1922년 3월 1일



대흥공립보통학교 여자 제1학년 일동 촬영년도 | 1922년 3월 1일



**남편의 옛모교(오가초등학교) 신성희**  
촬영년도 | 1978년 촬영장소 | 오가초등학교 화단 앞



**덕산중학교 봄소풍사진 윤정애**  
촬영년도 | 1959년 5월 2일

입선작

**삼교 뉴서울 양장점에서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뉴서울 양장점



**삼교시내에서 친구와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읍

**예산중앙초등학교 운동회 장기철**

촬영년도 | 1977년 추정  
촬영장소 | 예산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운동을 잘하는 누나들 덕분에 운동회 날이면 들떠 계시던 우리 아버지는 이발소 문을 닫고 딸들의 활약을 보기 위해 동네분들과 마을 깃발을 들고 학교에 찾아오셨다. 후지 필름을 넣은 구식 카메라 앞에서 힘껏 몸을 잡고 계신다.





### 예산성당의 옛모습 김재만

촬영년도 | 1964년 8월 14일 촬영장소 | 예산성당

아내의 할머니께서 영세 받으시고 찍으신 사진입니다. 프랑스 신부님과 보좌신부님이 계시고 그 왼쪽에는 할아버지께서 계시네요. 젊은 시절 모습이 장인어른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 예당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노명자

촬영년도 | 1978년 가을  
촬영장소 | 예당저수지

땔산에서 대흥까지 왕래하던 도선

**신양초등학교와 신양중학교 박현호**

촬영년도 | 1970년대 촬영장소 | 신양초등학교, 신양중학교



신양초등학교 옛 현관 앞



신양중학교 교정



**농협 하나로마트의 전신 연쇄점 박현호**

촬영년도 | 1970년대 촬영장소 | 농협 연쇄점



예농 소풍 탄산 박현호



촬영년도 | 1960년대 촬영장소 | 탄산

신양면 신작로 박현호



촬영년도 | 1960년대 촬영장소 | 신양면소재지



덕산면사무소 직원 인사이동 서정인

촬영년도 | 1959년 9월 3일  
촬영장소 | 덕산면사무소 앞 들  
덕산면사무소 면장 이취임 기념



**예당저수지 갑문 및 배수** 서 정 인

촬영년도 | 1975년 5월 / 1976년 6월 1일

촬영장소 | 예당저수지



**예산국민학교 운동장 조희** 서 정 인

촬영년도 | 1975년 3월

촬영장소 | 예산국민학교 운동장





**누에 봉잎주기**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급상에 따른 봉잎 계량시험**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예산의 자랑, 덕산온천 앞에서** 오 재 용

촬영년도 | 1978년    촬영장소 | 덕산온천

입선작



**수덕사 진풍경** 우재희

촬영년도 | 1975년    촬영장소 | 수덕사  
수덕사 입구 소나무 그늘 노점 풍경



**소녀들의 आय회** 우재희

촬영년도 | 1966년    촬영장소 | 예당저수지 부근  
1966년 예당저수지 부근 आय회 풍경



**산성리1구 기차길 건널목 풍경** 우재희

촬영년도 | 1969년    촬영장소 | 산성리 1구  
산성리 1구 화랑요 산성이 보이는 건널목 앞의 기차배경 가족사진



**45년 전 유모차와 세발자전거** 우재희

촬영년도 | 1970년 4월  
촬영장소 | 산성리 1구 자택



**예산읍사무소 옛 모습** 우재희

촬영년도 | 1960년  
촬영장소 | 예산읍사무소



**월남파병 가족사진** 윤정애

촬영년도 | 1966년 4월 13일  
예산군파월장병무운기도회 기념사진  
앞줄에서 두번째 영영초산업과장  
셋째 이계복공보실장  
다섯째 최상령 군수

입선작

가로실 저수지 동네사람들 윤정애

촬영년도 | 1975년 경 촬영장소 | 가로실 저수지 천렵



예산역 앞에서 이명구

촬영년도 | 1980년대 촬영장소 | 예산역



**광산직원들 체육대회 모습** 이명구

촬영년도 | 1941년 5월 4일  
촬영장소 | 광시면 장신리



**대흥면에서의 봉사활동** 이명구

촬영년도 | 1930~40년대 촬영장소 | 대흥면



**외조부님 회갑기념** 이명구

촬영년도 | 1900년 대 촬영장소 | 웅봉면지석리

입선작



수덕사 앞에서 외갓집 가족들과 이명구  
 촬영년도 | 1967년 5월 14일 촬영장소 | 수덕사

외갓집 가족들 이명구  
 촬영년도 | 1930~40년 대 촬영장소 | 응봉면 지석리



광시 장신리 고객굴 앞에서 이명구  
 촬영년도 | 1940년대 추정 촬영장소 | 광시 장신리고객굴 앞





**태권도 출전자들과 심사관계자들** 이명구  
 촬영년도 | 1969년 9월 21일    촬영장소 | 대흥초등학교



**작은 아버지 입대기념** 이명구  
 촬영년도 | 1944년 9월 10일



**연극 끝난 후** 이명구  
 촬영년도 | 1946년  
 촬영장소 | 대흥  
 대흥 소민극단기념

입선작



송별회 기념 이명구

촬영년도 | 1932년 5월

촬영장소 | 대흥면사무소 앞으로 추정

담어도 가는 박군



육상 후 기념촬영 이명구

촬영년도 | 1941년(소하16년) 촬영장소 | 광시소학교



대흥초등학교에서 국어강습 이명구

촬영년도 | 1938년 11월 26일 촬영장소 | 대흥

대흥소학교 부인 국어강습회 기념촬영



**대흥국민학교 학생들과 교사 이명구**  
 촬영년도 | 1940년  
 제8회 소인극기념



**대흥 청도관에서 심사를 마치고 이명구**  
 촬영년도 | 1968년 6월 16일 촬영장소 | 대흥 청도관 앞

**우물의 추억** 정민희

촬영년도 | 1957년    촬영장소 | 집  
아버지의 사진 속, 군청 앞에 위치한  
부모님의 옛날 집에 있던 우물



**본정동 거리의 추억** 정상열

촬영년도 | 1963년 경    촬영장소 | 본정동거리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비오면 흙내음 가득했던 본정동거리  
구 평화사진관 근처에서 찍은 사진

**예당저수지 조성공사 현장답사** 정해운



촬영년도 | 1954년 촬영장소 | 대흥면 노동리

**장구 최대화**



S 5261

촬영년도 | 1975년 추정 촬영장소 | 원평리(코끼리산)

입선작



코스모스길(젊은추억) 최태화

촬영년도 | 1970년대

촬영장소 | 신장원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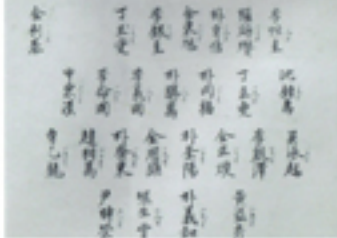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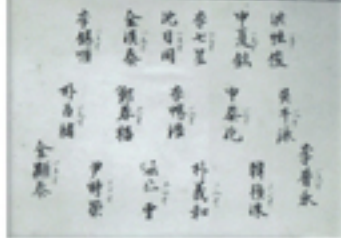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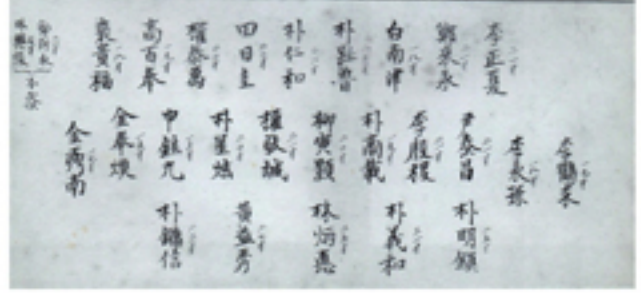
소풍 최태화

촬영년도 | 1978년 추정 촬영장소 | 비둘기호 기차 안

**<기타 참가작>  
소중한 우리의  
옛 모습들**

소중한 우리의 옛 모습이 담긴 참가작을 수록하였습니다.

대흥학교 박의화 선생의 슬자가 소유했던 사진 김전원







**길었던 갈래머리 자르고(풍습) 박현호**

촬영년도 | 1950년대

신문물의 영향으로 짧게 자른 할머니의 머리



**무기고 서정인**

촬영년도 | 1979년 7월 촬영장소 | 예산중앙고등학교

교련훈련용 총기류 보관, 사용하여 안보 및 군사훈련 교육에 공여하던 무기고





**양잠시범농가 표찰**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잠종과 누에선별검사**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잠종**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양잠기구 소독정비**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봉나무시범포에서 양잠농민교육**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시범포에서의 봉채취**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시범포 대비구역의 생육관찰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급상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급상장면**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누에고치 반입**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잠박과 누에**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뽕잎주기**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다단식 잠박에 누에가 자라는 모습**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뽕나무시범포에서 뽕잎채취** 서정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봉나무재배 시범포와 생육관찰** 서 정 인

촬영년도 | 1980년 6월 7일

촬영장소 | 대흥면손지리 일원





삼교우체국에서 친구와 같이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우체국



삼교 꽃산에서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꽃산



삼교 꽃산에서 친구와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꽃산





**삼교 꽃산에서 친구들과**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꽃산



**집에서 시어머님** 윤정애  
촬영년도 | 1973년 이전

삼교역 철로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역



삼교역에서 친구와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역





**양장점 직원 일동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예산읍 부인양장점 직원 일동 윤정애**  
 촬영년도 | 1965년쯤    촬영장소 | 예산읍 부인양장점



**이종사촌하고 외삼촌하고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응봉면 노화리



**삼교 시내 친구들 윤정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삼교읍, 본인** 윤 정 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



**삼교철물점 앞에서 엄마와 같이** 윤 정 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삼교철물점



**덕산 저수지 근처에서** 윤 정 애  
 촬영년도 | 1972년 8월 20일    촬영장소 | 덕산 저수지



수덕사에서 뉴서울양장점 직원이 같이 윤 정 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수덕사



삼교에서 친구와 윤 정 애  
촬영년도 | 1965년쯤 촬영장소 | 삼교

소풍 윤 정 애  
촬영년도 | 1970년 이전 촬영장소 | 수덕사  
남편과 시동생이 수덕사에서





**담배심는 사람들** 윤정애  
촬영년도 | 1975년 봄

새마을운동 당시 담배심은 부녀자들 모임에서



**남편의 덕산국민학교 43회 졸업사진** 윤정애  
촬영년도 | 1958년 3월 5일 촬영장소 | 덕산국민학교



**시동생의 덕산국민학교 45회 졸업사진** 윤정애  
촬영년도 | 1960년 3월 1일 촬영장소 | 덕산국민학교



**대흥 파출소 앞에서** 이명구

촬영년도 | 1965년 촬영장소 | 대흥 파출소 앞

대흥 파출소 앞에서 도장 파출소장 송별회 겸 기념촬영  
가운데줄 정가운데가 대흥 파출소장, 앞줄 좌측 본인



**산업대의 미인 우리엄마** 정원희

촬영년도 | 1977년 촬영장소 | 구 산업대

예산읍내에 위치한 옛날 산업대의 모습입니다. 옛 산업대에는  
큰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 그리고 연못이 멋스럽게 있던 곳이  
었습니다.



**고기잡이** 최태화

촬영년도 | 1974년 추정    촬영장소 | 무한천

무한천에서 연희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던 무한천



**구정설** 최태화

촬영년도 | 1979년 1월 28일    촬영장소 | 원평3길

새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오남매.  
뒤에 보이는 다리는 장항선 철로가 지나는 수로 위 다리.  
오른쪽은 아직 높은 건물이 없고 낮은 건물들만 살짝씩 보인다.



〈부록편〉  
예산,  
이 한장의  
사진

일계는 1930년대부터 가깝게는 1970년대 예산지역 관청사와 거리모습, 행사장면

그 시절 생활모습 사진제공\_송재철(예산문화원자문위원)

고향을 지키는 예농인 향우회(재향 예농 3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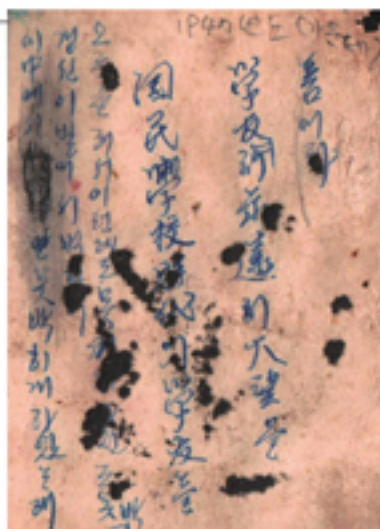
촬영년도 | 1960년대 촬영장소 | 향천사 인근



봉산초등학교 학우들

촬영년도 | 1940년대 촬영장소 | 봉산면

선생님께서 일일이 사진 뒷면에 초등학교 시대에 학우들이여 대망을 품으라는 내용을 적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예산군 최초의 비닐 하우스 시설농

촬영년도 | 1960년 경 촬영장소 | 봉산면

비닐하우스의 틀이 나무로 되어있는 것이 이채롭다.



**1952년 선생님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촬영년도 | 1952년 6월 2일 촬영장소 | 예산농고 교정

사진 속 글자는 예산농고 3학년 농과 A반임을 나타내고 있다.

**1930년경 봉산면 거주 가족사진**

촬영년도 | 1930년 경 촬영장소 | 봉산면

가운데 할아버지(송병익 옹)에게 안겨있는 아기가 사진제공자인 송재철(전 봉산농협 조합장)



**예산 대신정기화물 수덕사 야유회**

촬영년도 | 1970년 촬영장소 | 수덕사

옛스러운 막걸리 통과 스피커가 이채롭다.

그 시절 생활모습

사진제공\_ 박병하 (前예산문화원 부원장/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무한정보에 연재하였던 사진과 지역 옛사진을 모음.



명사십리 탄방놀이터

촬영년도 | 1981년 7월 8일

예산읍 주민들의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던 대흥면 탄방리 예당저수지 상류 탄방교 밑에 넓은 하천이 있었다. 여름이면 지역민들이 남녀노소 더위를 식히러 탄방놀이터로 몰렸다. 그러나 상류에 레미콘 회사가 생기면서 수질이 악화되어 찾는 횟수가 줄면서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무한천은 저수지가 막히기 전에는 금빛모래가 반짝이는 명사십리 폭넓은 냇가였다고 한다.

천렵

촬영년도 | 1960년 경  
촬영장소 | 무한천 벼룩부리 앞(현 예산상수도정수장 부근)

당시에는 물이 깨끗하여 미역을 감고, 숯단지들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 냇가 밑에 있는 뚝고추와 햇잎 등을 후드득 흠여 넣고 매운탕 어죽을 끓여 먹는 맛이 최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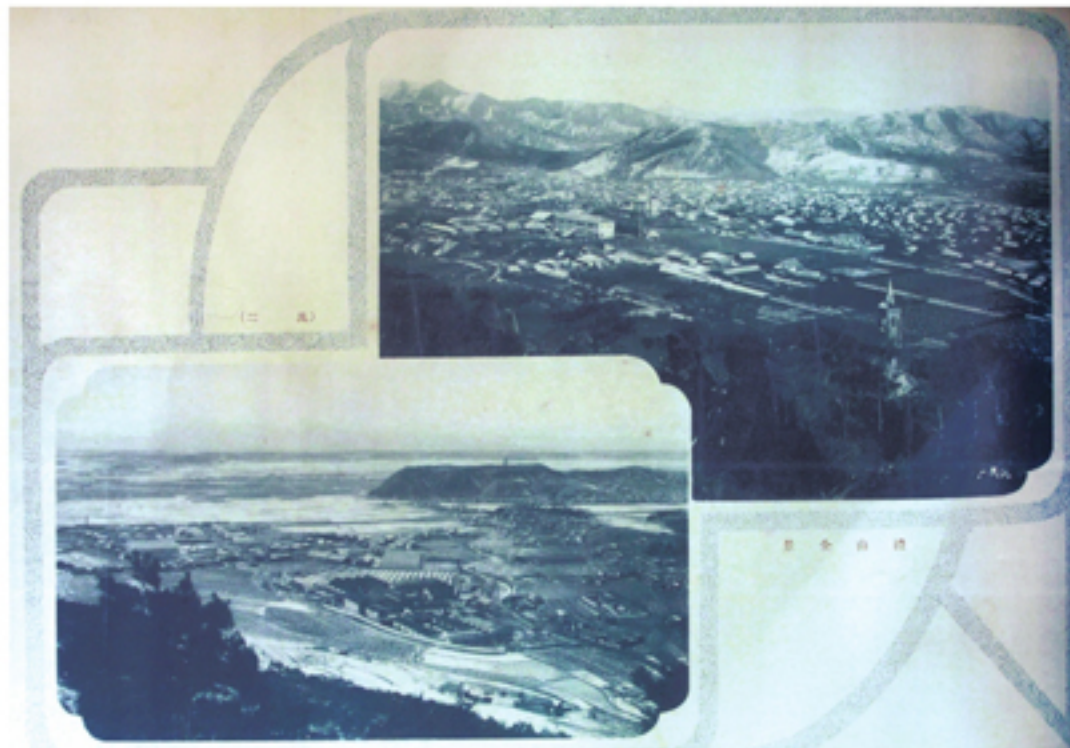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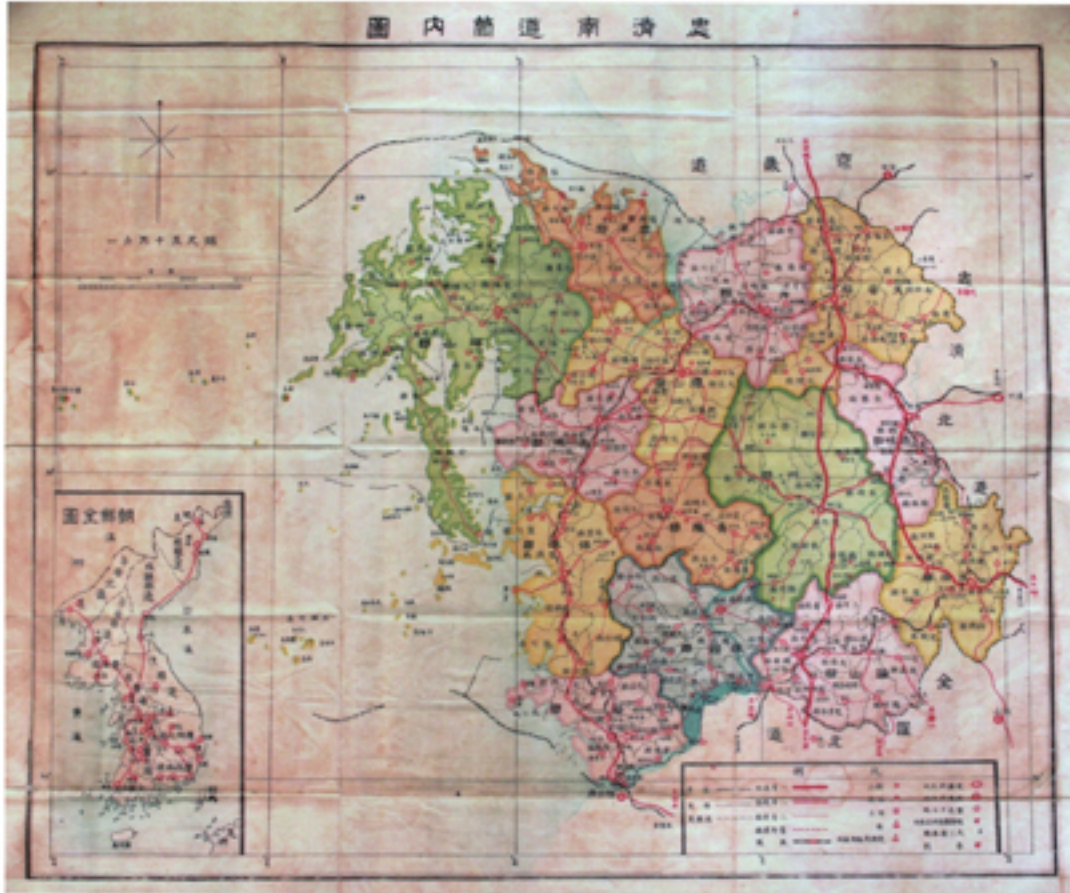


### 무의촌 무료진료

촬영년도 | 1980년대      촬영장소 | 무의촌

무의촌에서 진료봉사하는 해동안과의원 오성근 박사(위)와 원창용 원산부인과 원장(아래)  
현재에는 보건행정이 발전해 무료진료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면단위에도 의원이 있지만, 30여년 전만해도 농어촌지역은 의료사각지대여서 무료진료봉사활동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예산의 옛 지도와 옛 모습 (1930년대)



1930년대 예산읍 전경

## 관양산 파내기 전 모습과 파내기 작업 모습



예산읍내 전경 (其ノ一)

1930년대 예산읍내 전경



## 제사공장, 혹은 변대공장이 있던 자리

1960~70년대로 추정되는 예산읍 주교리 일대 전경이다. 멀리 보이는 산성산만이 의구하고 나머지는 흔적도 찾기 어려울만큼 변했다. 아파트숲이 돼 버렸으니 말 그대로 상전벽해다.

사진 속의 중심풍경은 (주)동아건설 전경이다. 그 시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기업이다. 하늘 높이 치솟은 굴뚝부터 기억이 새롭다. 지금의 석담유익아파트 자리다. 당시에 동아건설을 어른들은 '제사공장'이라고 일컬었고, 꼬맹이들은 '변대공장'이라고 불렀다. 변대기는 인기높은 요깃거리였다. 장날에는 아주머니들이 제사공장에서 받아온 변대기를 소쿠리에 수북이 담아놓고 신문지로 고깔을 접어 담아 팔았다. 벌써 40여년이나 지난 얘기다.

행사장면



예산군민의 날 행사

촬영장소 | 예산농전

70대 안팎의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진이다. 매년 10월 1일은 예산군민의 날이다. 지금도 예산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군민의 날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요즘에는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 사진(위)은 옛 예산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군수였던 이범승(11대 군수)씨가 시상하는 장면이다. 아래사진은 군민의 날에 농업학교 운동장에서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광경이다.



제3회 추사선생 추모전국서에 백일장

촬영년도 | 1992년 6월 28일  
촬영장소 | 추사고택



1990년 10월 28일 제1회 백일장을 시작으로 개최된 제3회 추사선생 추모전국서예백일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기틀을 잡게 되었다.





1965년 예산극장 준공식

촬영장소 | 예산극장

1965년 예산역 앞에 있던 예산극장(예산읍 주교리) 준공식 장면.

극장 앞에 장사진을 친 군중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당시 유행을 알려준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행사차장인 만국기와 종이꽃 화환도 추억을 자극한다. 영화포스터 간판 뒤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채롭다. 예산극장은 이후 1988년 즈음까지 주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문을 닫았고, '한국관'이란 주제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다른 업체가 입점해있다.



예산라이온스클럽 창립10주년 기념식

촬영년도 | 1978년 4월 20일 촬영장소 | 예산농협 회의실



예산 금오라이온스클럽 창립현장의 밤모습

촬영년도 | 1978년 10월 27일

행사장면



**북괴만행 예산군민궐기대회**

촬영년도 | 1980년 4월 24일      촬영장소 | 예산농고 운동장

이 날 개최된 예산군민궐기대회는 예산문화원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대회 후에는 예산시가지를 일주하며 반공정신을 일깨웠다.

**무료숙박소 및 경로당 개소식**

촬영년도 | 1960년 경  
촬영장소 | 예산읍 신례원리 신암 구 삼거리

1960년경 예산읍 신례원리 신암 구 삼거리 앞에 행려자 무료숙박소 및 신례원경로당이 개소했다. 당시 서창재씨의 자비와 지역인사들의 협찬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며, 무료숙박소로 문을 열어 행려자와 여행객들의 편의를 돌봤다. 이 곳이 예산군내 최초의 경로당이다.



**예산지역언론인종사자 창립총회**

촬영년도 | 1968년      촬영장소 | 예산읍사무소 회의실

예산에서 신문에 종사하는 지국장, 총국장, 기자들이 모여 예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예산신문기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수덕사 일주문 낙성식

촬영년도 | 1982년    촬영장소 | 수덕사

(위)수덕사 일주문 낙성식 모습,  
(아래)현판글씨를 쓴 손재형씨가 주지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모습

덕산 사천리 수덕사는 1962년 입구에 일주문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일주문 현판 글씨는 당대 서예계의 거목이었던 소전 손재형(1903-1981)이 전면에는 덕崇산 수덕사(德崇山 修德寺), 후면에는 동방제일선원(東方第一禪院)이라고 썼다. 손재형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일본에서 직접 찾아온 서예가이자 화가로도 유명하다.



### 4월혁명순국영령위령제

촬영년도 | 1960년 5월  
촬영장소 | 예산읍 공관 (옛 중앙극장)

예산군에서는 1960년 5월경에 사월혁명순국영령위령제를 올렸다. 예산군향토건설동지회 주최로 예산읍 공관에서 개최된 사월혁명순국영령위령제는 스님들의 독경 속에 영령들을 위로하였다. 이후 예산군향토건설동지회는 5.16을 거치며 급변하는 시국정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예산문화원의 변천사



예산문화원 사단법인 창립총회

촬영년도 | 1965년 2월 1일 촬영장소 | 예산읍사무소 회의실



개원 당시\_예산리 429번지의 예산문화원 원사

좌부터 김승규(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병하(예산문화원 사무국장), USIS 직원, 장영복(예산문화원장)



1960년대



1960년대



1970년대\_현 예산읍사무소자리



예산리 433번지의 예산문화원 원사



문화학교 수예반의 모습

주요기관 및 시설의 옛 모습



예산 농촌청년훈련원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오가면 역담리



충청남도 농사시험장 예산분장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오가면 역담리



예산농업창고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예산읍 주교리



삼교우편소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삼교읍 두리



**고덕금융조합**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고덕면 대천리(현 고덕농협)



**대홍금융조합**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대홍면 동서리(현 대홍농협)



**예산장로교회**

촬영년도 | 1960년대

(좌)관양산에서 바라본 예산5리와 6리 일대. 가운데에 1960년대 교회 모습과 초가집이 보이고, 예산천 개울도 보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산교회는 1952년 8월 17일 군청 뒤 신명유치원에서 첫 예배를 올린 뒤, 62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6.25 전쟁으로 이북에서 피난 온 장로교 신자들이 현 예산초등학교 강당에 수용 되었는데, 인근에 있는 신명유치원에서 첫 예배를 본 것이다. 1954년 5월 현재 삼선식당 자리인 개성옥을 구입, 교회로 사용하다가 (우)1955년 현재의 위치에 교회를 신축하고 이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의 옛 모습



전주지방전매국 예산출장소 전경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전주지방전매국 예산출장소

전주지방전매국 예산출장소는 예산을 주교리 전 예산세무서 자리에 있었다. 일반인들은 이 곳을 일컬어 그냥 전매청이라고 불렀다. 1919년에 설립된 예산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더불어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담배 유통관리의 중심이 되게 했다. 일당배 수확철이 되면 이 곳 마당으로 수납을 하기 위해 입당배를 가득 실은 마차와 리어카들이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예산의 전성시대를 기억하는 호서은행 본점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호서은행 본점



예산사람이면 호서은행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와 설립당시의 외형이 보존되고 있다. 호서은행은 1913년 5월 2일 예산군 예산면 장대리 22동 5호(파리파게트 예산점)에서 본점 영업을 처음 시작했다. 장항선 철도가 1922년 6월에 생겼으니, 그보다도 앞서 은행이 생긴 셈이다. 1931년 한일은행과 합병해 동일은행으로 됐다가 조흥은행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새마을금고로 사용하고 있다. 호서은행은 과거 예산군의 부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념물로서 1987년 12월 30일 도지정 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됐다.



70여년 전 예산군청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예산군청

1937년 즈음 예산군청 전경이다. 지금 군청 자리에 있던 일본식 건축물로 1968년께 헐렸고, 현재의 군청건물이 신축되었다.





**예산우편소**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예산우편소

현재의 우체국을 우편소라 했으며, 예산우편소는 원래 군청 뒤 신명유치원 근처에 있다가 옛 중국집 동화루 근처로 이사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옛 예산목욕탕 앞에 있었다. 그 후 1976년도에 현재의 대지를 매입해 신축이전했다.



**예산금융조합**

촬영년도 | 1937년

(위)초창기 예산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던 예산금융조합  
(우)1964~1965년 현 예산우체국 옆자리로 이전한 뒤 초기모습



예산금융조합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이다. 당시 은행업을 했던 기관이며 군내에는 예산금융조합과 신례원지소, 대흥금융조합, 고덕금융조합과 고덕금융조합 사교지소가 있었다.

**예산경찰서**

촬영년도 | 1937년



(위)1937년경 경찰서 전경. 현재 경찰서 자리에 있던 일본식 건물모습  
(좌)제21대 최종열 경찰서장이 이임하는 모습

1937년경 예산경찰서는 본서에 27명, 주재소에 29명, 계 56명이 예산군내 치안을 담당하였다.

주요기관 및 시설의 옛 모습



예산면사무소

예산읍은 군 소재지로 예산현시대 태종 4년(1404년) 현내면이라 칭하였고, 1896년 예산군으로 승군되어 군내면으로 개칭되었다. 예산, 향천, 대회, 주교, 산성, 석양, 발연, 관작, 신례원, 창소, 간양, 궁평, 수철리 13개리로 1917년 10월 1일 예산면이 되었다. 1936년 6월 현재 예산읍 사무소의 자리에 면사무소를 신축해 파리바게트자리에 있던 면사무소를 이전했다. 1940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하였다.



예산공립보통학교

촬영년도 | 1937년      촬영장소 | 예산공립보통학교(현 예산초등학교)

1937년에는 학급수 16학급, 교직원 17명, 학생수 1188명이었다.



###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신축 낙성식에서 당시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반공방첩'이라는 글귀가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예산세무서

(위)예산세무서가 예산읍 주교리로 이사오기 전 현재 국민은행 예산지점 자리에 있던 모습. (우)1972년에 주교리 예산전매지청(전주지방전매국 예산지청)이 있던 자리에 건물을 짓고 이사왔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오가면 좌방리로 신축하여 이 전하였다.



주요기관 및 시설의 옛 모습



공주지방법원 예산출장소

1937년경 현 명문약국 자리에 있던 공주지방법원 예산출장소 전경.

예산군법원·등기소는 세 번 이사를 해 현재는 예산읍 산성리에 자리를 잡았다. 등기소가 예산리 5구 장로교회 앞에 있을 때만 해도 등기소 안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가며 차를 기다리고, 직원들은 두꺼운 서류용치를 들고 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사라진 옛풍경이 됐다. 인터넷 등기민원 처리가 가능해지며, 요즘 등기소 풍경은 한산하다.



오산자동차부

현재 중국집 동흥루 옆이며 당시는 택시 및 화물차 영업소였다.

남선희동전기회사 예산출장소

예산에 일찍이 전기를 공급한 회사로서, 현재 오리동성당 올라가는 입구에 있었으며, 지금의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의 전신이다.





예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일제 강점기에 예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다닌 학교이다. 학급수 4학급, 교원 4명, 학생 112명(한국학생 5명 포함)이었고, 현재는 예산유치원이 신축되었다. 광복 후에는 금오국민학교로 되어 예산읍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석양리에 거주하는 학생이 예산국민학교에서 분리되어 다녔다.



예산공립농업학교

현재는 폐교되어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으로 1992년 승격되었다. 1910년 7월 26일 창립되어 1945년 광복 후에 예산공립농업중학교로, 1950년 예산농업고등학교로 되었다. 그 후 농업고등전문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 예산농업전문대학으로 변경됐다가 공주대학교와 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예농'하면 예산군의 흥망성쇠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날리던 농업전문학교가 지금은 그 터에 흔적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아쉬울 뿐이다.



예산곡물검사출장소

예산읍 주교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곡물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공서이다. 현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로 개명돼 2007년 12월 예산읍 향천리에 청사를 짓고 이전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의 옛 모습



충남교통 1급자동차 정비공장

촬영년도 | 1968년 6월

1. 충남교통 1급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낙성식 장면
2. 공장신축에 공이 많은 서창재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모습
3. 사장 박선린씨가 시상하는 모습

충남교통 1급자동차 정비공장이 1968년 6월 군내 최초로 신축돼 낙성식을 하였다.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앙초등학교 옆에 신축한 정비공장은 예산 인근의 자동차 정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충남자동차운수주식회사

그 옛날 읍내 하나은행 예산지점 자리에 있던 차부의 모습이다. 수입한 서양풍의 버스와 택시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밀집모자를 쓴 채 차를 기다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보인다. 이후 충남여객자동차회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다시 충남고속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2년 3월 31일 예산읍 산성리 현 종합터미널로 이전했다. 당시 터미널 이전은 예산읍내의 가장 큰 이슈였으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도심권의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산성리로 이전했다.



예산양조주식회사

예산지역 술제조 원조격인 회사다. 예산양조장으로 불리웠다. 1932년 1월에 창립되었고, 현재 효림요양병원 옆에 옛터가 남아있다. 옛날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예산양조장의 생물은 차기로 유명했다. 인근 주택 사람들은 모두 주전자를 들고 양조장 생물을 떠다 먹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흔적도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있다. 예산양조장의 막걸리와 약주 맛은 인근 고을 중에 으뜸이었다. 옛날 일본식 양조장 건물 사진에서 보이는 나무로 만든 전봇대와 비포장 자갈길도로 그리고 차가 지나간 바퀴자국 밖으로 자갈이 밀려나 있는 사진 속 장면이 그 시절의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대영금광

광시 서초정리에 있는 금광으로 김지태(1879~1949)씨가 사장이었다. 금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예산의 8대 부자에 속할 정도로 큰 부자였다. 그는 오가면과 대흥면의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등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는데, 현재 오가면과 대흥면에 '김지태 해흥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대술면 시산리에 있던 입석**  
현재는 없어졌다.



**봉산면 효자교의 비석**  
봉산면 당곡리와 효교리 사이 하천변 다리 옆에 있었고 현재는 없어졌다.



**예산읍 신례원리 논 가운데 있던 입석**  
가운데 부처의 모습을 새기었다.



**오가면 역탑리에 있었던 입석**  
예산읍 주교리 주민과 역탑리 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왔다갔다 하던 입석으로 현 오가면 예산소방서 앞에 있었고 현재는 없어졌다.





(좌) 화암사 시경 탁본  
(우) 화암사 천축고선생댁 탁본



(위) 광시면 보광사 사진  
(아래) 광시면 보광사 석탑 부재



신암 화암사 3층 석탑



대흥면 아문 현판



### 고운 최치원의 세이암

덕산면 옥계리 석벽 1

(좌)옥병계 석벽\_1970년대 당시 풍경  
(우)세이암 탁본한 모습

고운 최치원(857~?) 신라 말기의 학자, 호는 고운(孤雲), 시호는 문창후(文昌侯), 신라때 서경(서산) 태수로 왔던 최치원이 바위에 세이암(洗耳巖),이라고 새겨 놓았다.

### 청송 성수침의 수재대

덕산면 옥계리 석벽 2

성수침(成守琛, 1493년~1564년)은 조선 명종 때의 은사(隱士)다. 호는 청송(淸松), 시호는 문정(文貞). 1552년(명종 7년) 예산현감에 임명하였으나 불취하였다.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제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글씨를 잘 써서 필명이 높았다.





### 병계 윤봉구와 옥병계

덕산면 옥계리 석벽 3

1970년 즈음 옥병계에서 탁본하고 있는 모습.

윤봉구(尹鳳九, 1681~1767)는 조선 영조 때의 학자. 호는 병계(屏溪), 구암(久菴). 시호는 문헌(文獻). 관은 판서, 한원진, 이간, 이이근, 현상벽, 채지홍, 최징후, 성만징과 함께 황강 권상하의 문하 제자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 이르며, 그 아호는 옥병계(玉屏溪)에서 연유하여 병계라 했다.

### 석문 윤봉오와 석문담

덕산면 옥계리 석벽 4

윤봉오(尹鳳五, 1688~1769)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 아호는 석문(石門), 시호는 숙간(肅簡). 관은 우참찬이고, 70세가 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병계 윤봉구의 동생이다. 그의 아호는 석문담(石門潭)에서 연유했으며 황강 권상하의 문인이다. 덕산 상가리에서 내려오는 냇물과 원효봉 아래 사기점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는 부근에 넓고 깨끗한 백석암반과 이 암반을 거쳐 내리는 수량많은 폭포가 있다. 이곳이 석문담이다.



### 청송의 주자시

덕산면 옥계리 석벽 5

청송 성수침(1493~1564)이 써 놓은 주자시(朱子詩)가 있다.

#### 청송서(聽松書)

獨抱瑤琴過玉溪 琅然清夜月明時

祇今已矣無心久 却怕山前荷蕢知

혼자서 요금을 안고 옥계천을 지나는데 랑연한 맑은 밤에 달이 밝을 때 지금은 끝이로다.

무심한지 오래되니 산 앞에 연꽃통금인가 알까 두려워라.

-예산문화원 전 부원장 전용국 역

###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복원되기 전 1968년 겨울에 촬영한 사진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덕산온천 동남쪽 수암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 6월 21일 보물 제 508호로 지정 되었다. 높이 549cm, 어깨너비100cm, 둘레 374c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1968년 겨울, 훼손된 불상이 있다는 제보전화에 가보니 불상의 허리부분만이 서 있고 불두와 갓, 하단부는 주변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다. 아마도 조선조 억불숭유정책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그대로의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조사단이 내려오고 난 후, 곧바로 보물로 지정되었다.



머리부분



갓부분



아래부분



허리부분



## 의종은 형제비

(위)1978년 의종은 형제비를 발견한 뒤 고영귀(고석봉 선생 동생)씨가 탁본뜨는 모습  
(아래)보호각을 짓기 전, 비의 모습

의종은 형제비는 예산이성만형제효제비로 1983년 9월 29일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대흥면 동서리 대흥동헌 앞에 있으며, 높이 203cm, 폭 43.5cm, 너비 25cm로 화강암이다. 시대는 1497년(연산군 3년)이다. 이 우애비는 개병이다리(가방교) 옆에 있었는데, 예당저수지로 수몰되면서 없어졌다가 1978년 예당저수지 준설시에 발견된 것이다.

우애비에는 1418년(세종 1년) 11월 3일 지신사 하연(河演)의 주청에 의하여 충청도 고려 대흥호장 이성만, 이순형제가 부모가 살았을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볼과 가을에는 술과 떡을 하여 부모에게 드리고, 친척들과 기쁘게 나누어 먹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형은 어머니묘를 지키고 동생은 아버지묘를 지켰으며, 아침에는 형이 동생의 집을 찾았고, 저녁에는 동생이 형의 집으로 가서 아침 저녁을 같이 먹을 때 한그릇의 국이 생겨도 함께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모범이 되게 하라는 내용의 비문 173자가 기록되어있다.



## 충의사

(위)최초의 충의사 건물. 1967년 10월에 촬영한 사진으로 제 17대 최상령(1965. 9. 13-1967. 12. 4) 예산군수 시절에 유족과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세웠다.

(아래)박재복(1967. 12. 5-1970. 3. 4) 예산군수 시절에 초창기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와 낙성식을 겸한 성대한 행사를 했다. 이후 목조건물을 헐고 국가지원으로 다시 건축한 건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충의사는 매한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모신 사우로서 홍살문과 삼문이 있으며, 기념관에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사적 제299호(1972. 10. 4)로 지정되어있고, 덕산온천로 183-5에 위치해 있다.





### 대술면 왕자 태실

대술면 걸곡리에는 태봉산이 있다. 1960년대 태실 유물을 동네 사람들이 옮겨서 길 옆에 세워 놨는데, 충남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송하였다. 당시 마을에 시멘트 몇 포대 주고 가져갔다는 말도 있다. 이 유물은 예산군의 문화재이므로 반드시 찾아와야 될 것이다. 비석 전면에는 강희 38년 6월 13일 인시생(康熙 三十八年 六月 十三日 寅時生) 왕자아기씨 태실(王子阿只氏 胎室), 후면에는 강희 38년 9월 29일 입(康熙 三十八年 九月 二十九日 立)이라고 쓰여있다. 강희 38년은 1699년 숙종 25년이며, 태실의 주인공은 숙종의 6(영조의제) 왕자 연령군(延齡君)이다.

이름은 원이고, 자는 문숙(文叔), 유명(幼名)은 인수(仁壽)이다. 인시(寅時)는 오전 3-5시이다.



태실비석 윗부분



태항아리 뚜껑



태실비석 아랫부분



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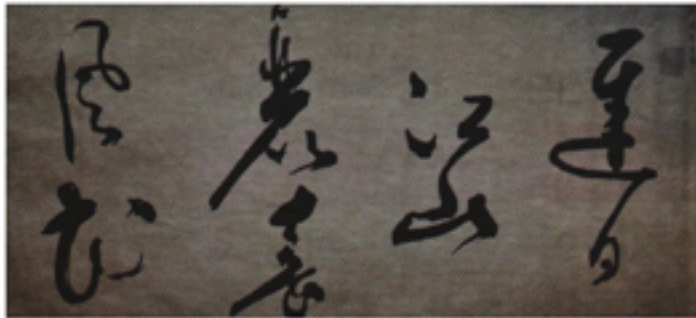
## 대흥면 웅주태실

대흥면 대흥동원 뒤에는 웅주태실비와 태호(胎壺, 태항아리)가 있다. 1981년 11월 6일 발견되어 현재는 대흥면사무소 뒤에 보관되어 있다. 비 전면에는 건용 18년 3월초 3일 술시생(乾統 十八年 三月初三日 戌時生) 웅주아기씨 태실(翁主阿只氏 胎室), 후면에는 건용 18년 5월 13일 입(乾統 十八年 五月十三日 立)이라고 쓰여 있다.

원래는 광시면 월송리 산77에 있던 것을 1981년 11월 대흥면사무소로 옮겨졌다.

건용 18년은 1753년(영조 29년)이며, 술시는 오후 7~9시이다. 영조는 웅주를 12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이다.

태실의 주인공은 영조후궁 숙의문씨(淑儀文氏)의 딸로 태어났다. 이름은 화령옹주(和寧翁主, 1753년~1821년 음 9월 3일)이며, 11살 때인 1764년(영조 40년) 음력 10월 16일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沈能建)과의 혼인이 결정 되었으며, 심능건은 청성위(靑城尉)에 봉해졌다. 화령옹주는 1821년(순조 21년) 68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화순옹주(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모이며)의 동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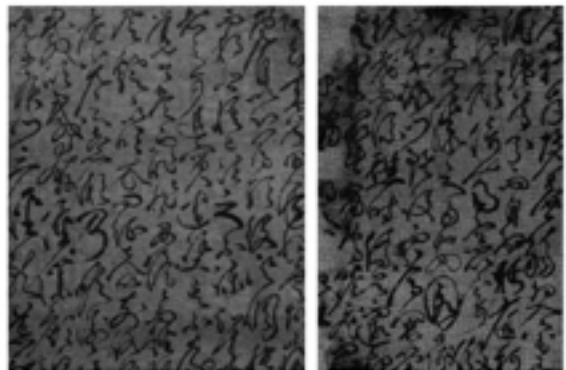


자암 김구(自庵 金球, 1488~1534)  
조선의 명필로 이름을 떨친 예향인물 1

지일강산 여춘풍화(題曰江山 麗春風花)-나른한 봄날에 강산이 아름답고 봄바람은 꽃향기 싣고 불어오네.(杜車詩)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삼암(三庵) 중 한 분이 자암 김구(自庵 金球)선생이다. 나머지 두 분은 정암 조광조, 충암 김정으로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불리고 있다.

김구(1488~1534)는 조선초기 4대 명필 중 한 분이다. 안명대군 이용(1418~1453), 봉래 양사언(1517~1584), 석봉 한호(1543~1605)와 더불어 명성을 떨쳤다. 김구는 왕희지의 서체를 연구해 인수체를 완성했는데 그가 서울 인수방에 살아서 생긴 것이다. 자신의 글씨를 중국인들이 사간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붓을 쥐어 남은 작품이 드물다. 김구의 묘역과 재실은 신암 종경리에 있다.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1539~1609)  
조선의 명필로 이름을 떨친 예향인물 2

벼슬은 영의정, 한산인이며, 종손덕에는 그의 초서 귀거래사(歸去來辭) 목판본이 보존되어 있다. 초성(草聖)이라 일컬어질만큼 초서에 능통한 분이다.

"귀거래해(歸去來兮)여 전장무(田將無)하니 호불귀(胡不歸)요(돌아가자! 전원에 장차 황폐하려 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로 시작되는 귀거래사 목판본은 병풍 한조를 꾸미기 좋은 판본이다. 그의 묘와 후손들은 대술 방산리에 살며, 입구에 신도비가 우람하게 서 있다.





### 옥동 이서(玉洞 李澱)

조선의 명필로 이름을 떨친 여향인물 3

옥동 이서(헌종 3년~경종 3년, 1662~1733)는 여주 이씨다. 관(官)은 찰방(察訪)이고,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의 중형이며, 고덕면 상장리에서 성장하였다. 옥동은 진체(晉體)를 발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한 분이다. 우리나라 서도진체(書道眞體)는 옥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칭송을 받는 분이다.

###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조선의 명필로 이름을 떨친 여향인물 4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추사 김정희(정조 10년~철종 7년, 1786~1856)는 관(官)은 병조참판이었으며, 경주 김씨이고, 신암면 용궁리에 묘(墓)와 고택(故宅)이 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며 학자이다. 세상에 전무한 추사체(秋史體)를 창안하신 분이다.

추사(秋史), 완당(玩堂), 예당(禮堂) 등 많은 호(號)를 지어 쓴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 밝혀진 명호의 숫자는 <추사 명호처럼 살다> - 최준호 지음- 책(冊)에서 343개의 명호가 있다고 밝혀졌다. 유명한 세한도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추사의 고장인 예산에는 친필 진품이 전무하다 하니 애석한 일이다.



신암 화암사 현판 시경루



화암사에 걸려있던 백벽 그러나 현판은 행방불명



화암사에 있던 추사 친필 현판 현재 수덕사 선박물관에 보존

## **비매품**

발행처 예산문화원  
주소 340-8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연락처 tel. 041-333-2441, 335-2441 / fax. 041-334-4330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김시운  
기획 박세진  
편집 김상희, 윤선은  
인쇄 디자인나무 041-334-1033

\* 본 도록은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본 책자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은 예산문화원에 있으며 무단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